

청년창업기업 5년간 법인세·소득세 0원

정부, 올해 창업 활성화 대책

기술혁신부문 최대 1억원 지원

고용장려금 등 일자리 창출

청년이 창업하면 매출액에 상관없이 5년간 법인세와 소득세 100%를 감면해 준다. 모든 연령대 기술혁신 창업자에게는 제약 없이 사용할 수 있는 1억원 규모의 '오픈바우처'를 지원, 청년 일자리를 창출한다.

근로장려금 지급대상도 30세 미만 청년 단독가구까지 확대된다.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는 15일 청와대에서 열린 '5차 일자리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청년일자리대책'을 보고했다.

정부의 일자리대책에는 우선, 청년(19~34세)의 세금 부담을 낮춰 쉽게 창업할 수 있도록 매출액을 따지지 않고 법인세와 소득세를 5년간 100% 감면해 주는 내용이 담겼다.

3년간 75%, 4~5년간 50%였던 감면율을 확대했고, 나이 상한선도 올렸으며, 지역 제한도 완전히 폐지했다.

이에 따라 청년창업기업 14만개가 연간 총 2500억원 규모의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정부는 전망했다. 다른 연령대 창업도 활성화하기 위해 연 매출 4800만원 이하의 모든 창업자에게도 5년간 법인세와 소득세를 100% 감면해 주기로 했다.

정부는 창업이 일자리 창출의 핵심 동력이라는 인식으로 모든 연령대의 창업 활동을 활성화하는 대책도 내놨다.

생활혁신형 창업자(최대 1만명)에게 1000만원 생

■ 청년 창업 혜택

창업 5년 이내 청년 3명 신규 채용 시
3년간 8,100만원 + α

- 인건비: 청년 3명 X 연 900만원 X 3년 = 8,100만원
- 세 부담: 0원

창업 단계별 혜택

- 예비창업: 최대 1억원 오픈바우처 → 창업기업 설립
- 초기성장: 최대 10억원 초기 성장자금 확보
- 공공 창업공간 입주료 임대료 절감 (1천만원 이상, 연 100만원 세무·특허 등 바우처, 세금 부담 0원)
- 본격성장: 3년간 최대 20억원 + 혁신모험펀드 투자

자료/관계부처 합동 **연합뉴스**

공급 용자와 5000만원 추가 투·융자를 지원한다. 기술혁신 창업자(최대 3000명)에게는 제약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최대 1억원 규모의 '오픈바우처'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아이디어 응모나 창업경진대회, 주요기업 등의 추천으로 선발할 예정이다. 여기에는 해외 인재의 국내 기술창업(200개)도 포함된다. 이들에게는 비자 발급에서 국내정착까지 '원스톱 맞춤형' 지원이 제공된다.

정부는 올해 7월 결성 예정인 2조6000억원 규모 혁신모험펀드를 조기 전액 투자할 수 있도록 성과 보수 제도를 운영한다. 이 펀드가 전부 소진되면 추가 재원을 확보할 계획이다.

아울러 창업 현장에 찾아가는 '기업 비즈니스 지원단'을 확대하고, 사업지원 바우처를 지급해 회계·세무·노무·특허 등 행정업무 부담 해소를 꾀한다. 정부는 민간주도 창업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티스(TIPS)

사업을 500개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창업·벤처 기업의 성장에 필요한 연구개발(R&D) 비용으로 3년 동안 최대 20억원을 지원하는 후속 창업지원(Post-TIPS) 사업도 새로 만든다.

지방 창업 우대를 위해서는 혁신 창업기업 입주 공간인 TIPS타운을 지방으로 확산한다. 지방 창업기업은 현재 기준인 투자 금액 최소 1억원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TIPS 지원 대상에 포함한다.

기술혁신 청년 창업자가 성장 단계별로 받는 혜택을 정리하면 이렇다.

예비창업 단계에서는 오픈바우처 1억원을 받는다. 초기성장 단계에서는 민간주도 창업지원 사업 최대 10억원, 세무·특허 바우처 연 100만원을 받는다.

창업 5년 이내에 청년 3명을 고용하게 되면 청년 추가고용장려금을 통해 3년간 총 8100만원도 지원 받을 수 있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박기용기자 pboxer@kwangju.co.kr

벤처기업, 5년새 일자리 2만8000개 만들었다

중기부, 벤처투자 효과 분석

SW·반도체 부문 고용 많아

최근 5년간 벤처투자를 받은 기업들이 2만8000여개의 새 일자리를 만든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5일 고용정보원, 한국벤처투자협회, 한국벤처투자자와 함께 벤처투자를 받은 기업의 고용 효과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그 결과 최근 5년(2013~2017년)간 벤처투자를 받은 기업은 2649개사로 약 11만명을 고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이들 기업은 벤처 투자받기 직전 해와 비교해 2만8134명의 신규 고용을 창출했다.

지난해만 살펴보면 529개 기업에서 3191명을 신규로 고용해 전년보다 고용이 21.8% 늘었다.

김주호 중기부 벤처투자과장은 "지난해 벤처투자를 받은 기업의 고용증가율은 중소기업보다 약 5배가 높아 벤처투자가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창업 3년 이내 기업이나 청년창업 기업이 투자를 받으면 고용창출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창업 3년 이내 초기기업 1075개사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투자받기 전년보다 1만2000개 이상 신규 일자리를 창출했으며 지난해 고용증가율은 83.4%에 달했다.

318개 청년창업기업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투자받기 전년보다 고용을 7982명 늘렸으며 고용증가율은 51.9%였다.



벤처투자를 받은 기업의 업종별 고용인원을 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소프트웨어가 가장 많은 1만4133명을 고용하고 있었으며, 반도체·전자부품(1만89명) 등 정보통신기술(ICT) 업종 고용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ICT, 바이오 업종(의약품, 의료기기), 도소매업, 영상업종 등은 고용이 많을뿐더러 고용증가율도 높은 특성을 보였다.

“기업형 임대주택 돌풍 남악서 시작될 것”

최갑렬 삼일건설 회장 인터뷰

서민 주거문제 도움 주는 기업

올해 남악·광주·아산 등에 건설



세입자들 입장에서 임대 의무 기간(8년)이 보장되는데다, 임대료 없이 전세 조건으로 머무를 수 있어 짚은 이사, 과도한 임대료 상승 등의 불안감을 덜 수 있다는 점도 장점으로 꼽힌다.

최 회장은 “서민들의 편안한 주거 공간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전용면적 62·69·76·84㎡에 맞춤형 생활가전(에어컨·냉장고·세탁기 등)을 기본 옵션으로 제공하고 단지 내 피트니스 시설과 주민 커뮤니티, 커피숍 등 편의시설도 조성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 회장은 올해 남악 뿐 아니라 ‘광주 송정’, ‘아산 3·4차’ ‘삼일파라뷰’도 첨단 기술이 반영된 신개념 스마트 아파트로 건설,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세워 놓았다. 이미 충남 아산에 전세형 임대아파트 ‘삼일파라뷰 더 스테이’로 첫 분양에 나서 분양 3일만에

임주자 모집을 완료한 데 따른 자신감도 엿보였다. 올해 기업의 성장 동력 기반으로 건설사업에 대한 관심을 쏟는 것은 아니다. 기업의 메세나 활동에도 적극적이다.

최 회장은 5년 전부터 지역 전업작가협회 고문으로 참여하며 예술인들의 창작 지원 활동에 관심을 기울여왔다.

그는 올해도 광주의 유능한 예술가들이 마음 놓고 작품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역 청년 작가들의 작품을 전시할 수 있는 공간, 이들 작품을 구매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준다는 공을 들일 계획이다.

지역출신 예술가들이 좋은 작품을 만들어낼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주는 게 진정한 향토기업의 역할로, 그래야 광주가 진정한 문화예술의 도시로 거듭날 수 있다는 생각에서다.

그는 또 ‘삼일문화재단’을 통한 ‘나눔’ 실천과 보훈가족 지원활동 등도 지속적으로 펼쳐왔다.

보훈가족 지원활동의 경우 자신도 보훈가족임을 들어 정기적으로 정부지원을 받지 못하는 ‘비연금’ 대상자들을 중심으로 꾸준한 후원활동을 진행 중이다.

그는 ‘삼일문화재단’을 통해 매년 5억원 이상 기부활동을 약속하기도 했다.

그는 “도움을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주민들이 많다”면서 “이런 분들을 찾아내고 도움을 주는 후원 활동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

1000만원 상당 지원 ‘협동조합 창업’ 도전하세요

4월19일까지 온라인 접수

기획재정부는 15일 ‘제3기 청년협동조합 창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협동조합 창업을 지원하는 이번 공모에는 1979~1999년생 청년이 단체의 절반 이상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기재부는 협동조합 형태 창업 적절성, 사업 모델 실현 가능성, 일자리 창출 효과 등을 심사해 오는 5월 29일 최종 30팀을 선발할 계획이다.

최종 선발되면 최대 500만원에 달하는 상금

과 팀당 650만원의 사업화 자금도 지원할 방침이다.

기재부는 이번 공모에 업종별 전문성이 있는 협동조합을 일대일로 붙여 협동조합 관련 기본교육과 사업계획서 작성 등 사전교육부터 사업 안정까지 전 과정을 지원할 예정이다.

접수는 협동조합 홈페이지(www.coop.go.kr),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www.socialenterprise.or.kr)에 공지된 신청서류를 작성한 후 온라인(www.ideanumso.com)으로 접수하면 된다. 마감은 내달 19일까지다./연합뉴스

호남청년창업사관학교, 70명 선발 집중 지원

중소기업진흥공단 호남연수원은 15일 2018년도 호남청년창업사관학교(교장 최명선) 8기생 70명을 최종 선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발된 8기 입교생들은 올해 총 사업비의 70%이내에서 최대 1억원까지(2년 과정은 2년간 최대 2억원까지) 시제품 개발 및 제작

비, 창업교육, 창업공간, 전담교수 코칭, 기술개발 및 마케팅 등을 집중 지원받는다.

졸업 후에는 창업기업의 안정적인 성장추진을 위하여 후속연계지원, 정책자금지원, 수출·마케팅 등도 연계해 지원받을 수 있다.

/박기용기자 pboxer@kwangju.co.kr

천만홀릭
케미순
매주 금요일 밤 9시 30분

CHANNEL

경리
이원석
신동엽
김기방
은지원